



기도: 궁극적인 학습 자원 Prayer: the ultimate study resource

조지아 불록 (Georgia Bulloch)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넬(Christian Science Sentinel)

2006 년 8 월 2 일

내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수강 신청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나는 선택과목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솔직히 나는 대학을 마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훑어 보고 쉬어 보이는 과목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리스와 중동의 신화”가 어렵다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강의 계획서에는 단지 두 번의 시험이 정해져 있었다. 교과서는 다양한 고대 문명으로부터의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종이 표지를 한 얇은 책이었고, 우리는 한 번도 그 책에서 과제를 지정 받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선택을 잘한 듯 했다.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대수,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준높은 회계학 등 많은 수의 어려운 과목들을 택해 왔었다. 나는 이 마지막 강의를 쉽사리 헤쳐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했다.

담당 교수는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을 했었고, 자기가 방문했던 나라들에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신화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강의는 재미가 있었지만, 별로 짜임새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일정이 잡혔을 때 강의를 같이 듣는 동료들과 나는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 자신이 없었다. 우리는 모여서 이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심히 불평을 털은 후, 집단적으로 분개하며 헤어졌다. 우리는 아예 공부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것은 나의 평소의 태도가 아니었지만, 나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시험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기하였다.

나는 교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다.

시험은 어려웠다. 우리는 여러 개의 신화 원본을 분석하여야만 했는데, 나는 그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시험지에 거의 아무 것도 쓸 것이 없었다. 나는 교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고,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 그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에 대해 원망을 느꼈다. 나는 교과서를 읽고, 강의 시간에 노트를 하고, 그것들로 시험을 치르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것은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시험을 망쳤고, 내 동료들은 훨씬 잘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태도는 더욱 더 악화되었다. 내가 다들 모두 그랬겠거니 생각했던 바와는 반대로, 그들은 공부를 하였었고, 내가 놓쳤던 정보를 알았던 것이 분명했다.

좌절되어,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상황을 평가하면서, 나는 이 과목을 신청했던 나의 동기가 기도에 의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제 좋을 대로 생각한 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잡기를 원하였다.

나는 에디 여사가 기도대로 사는것에 대해 썼던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영적으로 다룰 것인가 알기 위해 메리 베이커 에디가 지은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를 펼쳤다. 놀랍게도 바로 제일 첫째 장에 기도에 대한 “시험”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당신의 기도를 말로만 하는 대신 사는 것에 대해 에디 여사가 말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자, 나는 내가 이 시험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겸연쩍은 마음으로,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과목의 학점을 딸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처음부터 이기적이었고 웅졸했었다. 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성공이 나를 피해갔다는 것이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었다.

내 잘못을 두고 교수를 탓한다는 것은 유치하고 터무니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강의를 때때로 지나치게 좁게 초점을 맞추는 교과 프로그램의 폭을 넓히는 풍요로운 선택과목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최선을 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험은 고등 교육의 목표의 하나인, 자료를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새로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는 내가 대응해야 할 정당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학기말 시험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이해와 이지가 하나님의 자질들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깨달음과 이해와 인내와 이지를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공부를 통해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주어진 **하나님**의 자질들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가 기도하는 바 대로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였다. 나는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었고 최선을 다해 주의 깊게 노트를 하였다. 나는 그 과목이나 교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또는 나의 기도들에 대해 비생산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 버렸다. 나는 이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하였다.

비이기적 기도, 즉 성경이 “의로운”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의 뛰어난 예가 열왕기상에 있는데,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이 영적 인도를 받기 위해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응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자신을 위한 부를 구하지도, 자신의 원수들을 정복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현명하고 깨달는 마음을 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와 모든 다른 것들도 함께 받게 되었다.

학기말 시험 때가 되자, 나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의로운 기도를 갈망하였다. 우리가 분석해야 할 신화들을 읽은 다음 나는 다시금 공포감을 격퇴하여야 했다. 나는 아직도 나에게 내놓을만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해나 다른 영적인 자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기도하기 위해 멈추었다. 나는 인내와 이해와 직관을-매 순간 내가 필요로 하는 영적 자질들이 무엇이든-나타낼 수 있는 중단 되지 않는 능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나는 내가 주의 깊게 노트를

했고, 공부를 했고, 교과서를 읽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순종의 단계들이 - 아마도 얻어진 어떠한 정보보다도 - 이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해답의 열쇠이었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들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것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함에 따라, 나는 모종의 형태의 신화들이 가진 패턴을 분별했고,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차이점들을 분별하였다. 나는 학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기말 시험지를 제출하였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고 나는 졸업을 위한 모든 요건을 쉽사리 만족시킬 수 있었다.

오늘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아직도 나에게 영감을 준다. 강의를 들으며 배운 교훈은 아직도 내게 남아 있다. 기도에 대한 나의 이해는 성숙해졌다. 나는 기도의 바탕인 순수한 동기의 중요함을 배웠다.

그리고 나의 태도는 처음에 이기적이기는 했었지만, 나의 애초의 기도는 의도적이었다기 보다는 무지한 것이었다. 나는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쉽게 딸 수 있는 학점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신에 나는 함정에 빠지고 장애물을 만나고 말았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기반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자 함으로 옮겼을 때, 나는 어려운 지경으로부터 벗어났다. 나의 생각들과 동기들을 영적 관점으로부터 따져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제 멋대로 함과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성공과 진전은 비이기심과 정직과 같은 영적 자질들, 그것들을 살면 계속 늘어나는 축복들을 가져오는 영적 자질들, 위에 구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지 않는가!

조지아 볼록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선생이며 프랙티셔너이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산다.